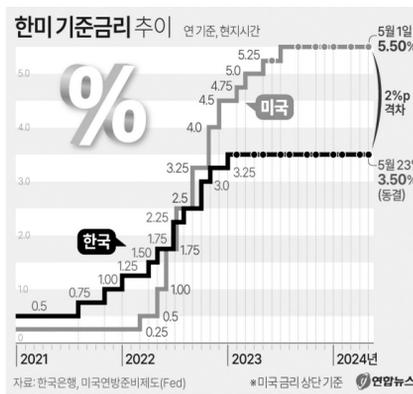


물가·환율 불안에 기준금리 11연속 동결...인하 시점 '안갯속'

소비 회복에 수요측 물가 압력 커져...한은, 3.5% 긴축 기조 유지 GDP 성장률 2.5%로 상향...소비자물가 예상치는 2.6% 그대로

한국은행(한은)이 기준금리를 11연속 3.5%로 동결하고 긴축 기조를 이어갔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묶은 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직 목표 수준(2%)까지 충분히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초 우려보다 우리나라 경제가 호조를 보이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전망은 오히려 더 짙은 안개 속에 빠졌다. 민간 소비 등이 살아날수록 수요측 물가 압력이 커져 금리를 낮추기가 더 어렵기 때문인데, 하반기 인하마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3일 오전 9시부터 열린 올해 상반기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

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금통위는 회의 의결문에서 결정의 배경에 대해 "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성장세 개선,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물가의 상방 리스크(위험)가 커졌다"며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속되는 만큼 긴축 기조를 유지하며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나가는 게 적절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또 이날 내놓은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눈높이를 기존 2.1%에서 2.5%로 한꺼번에 0.4%포인트(p)나 높였다. 시장의 기대를 훌쩍 넘어선 1분기 성장률



(1.3%)을 바탕으로 재추산한 결과 예상보다 강한 정보기술(IT) 업종과 미국의 경기 덕에 순 수출(수출-수입)이 0.3%p, 민간 소비 등 내수가 0.1%

p 각각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올렸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하지만 성장률 상향조정에도 올해 소비자물가 예상치(2.6%)는 그대로 유지됐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장률 전망치가 올랐으니 당연히 물가 상승 압력도 커졌지만, 물가 정책을 통해 상쇄되는 부분 등을 고려할 때 기존 2.6%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경기 호조의 물가 영향이 크지 않다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 것은 사실인 만큼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춰질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 총재는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가 있지만, (성장률 상향조정에 따른) 물가의 상방 압력이 있어 인하 시점의 불확실성은 이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단 향후 3개월 내 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도 시장에 내놨다.

이 총재는 "저를 제외한 여섯 분의 금통위원 가운데 다섯 분이 앞으로 3개월 후에도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며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여러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인 만큼 목표 수준(2%)에 수렴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날 금통위 회의 전까지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일러야 9월, 한은은 이후 10월이나 11월에야 기준금리를 낮추며 통화정책 전환(피벗)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여기에 덧붙여 이번 금통위에서 강한 경제 성장세에 따른 수요측 물가 압력이 논의된 만큼, 시장의 인하 예상 시점이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향후 유가·농축산물 가격·공공요금 등의 상황에 따라 첫 인하가 내년에로 밀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협은행 전남본부, 가족과 함께 '허그팜' 금융교육

초등생 대상 통장 개설 등 교육

NH농협은행 전남본부는 농협은행 대학생 봉사단 N돌님 전남팀과 함께 지난 22일 초등학생 대상 '부모님과 함께하는 허그팜(Hug Farm) 금융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허그팜은 축복하다는 뜻의 'Hug'와 농촌을 연상케 하는 'Farm'을 결합한 단어로써 일상생활에서 농촌을 가까이한다는 농심(農心)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참가 학생들은 일일 은행원이 돼 ▲통장 개설 ▲입금 ▲출금 등의 금융업무에 포함해 디지털 핀테크를 활용한 금융게임과 금융사기 예방교육 등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체험을 통해 받은 상품 교환권으로 우리 농산물과 쌀 등을 직접 구입해 볼 수 있는 '허그팜 마켓'을 진행해 참여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정재현 본부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



참여형 금융교육을 마련했다"며 "자라나는 학생들이 금융인으로서의 꿈을 키우고 우리 농산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재경농협곡성향우회,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전달



재경농협곡성향우회는 지난 22일 곡성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전달식에는 이상철 곡성군수, 박종택 전남농협 본부장, 안종팔 농협곡성군지부장, 강승구 곡성향우회장(농협은행 서울강북사업부 본부장)과 향우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농협곡성향우회는 지난해에도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한 바 있으며, 올해도 자발적으로 동참해 고향사랑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낼 것을 약속했다. 이상철 군수는 "작년에 이어 계속해서 고향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부해주시 감사하다"며 "여러분의 뜻을 모아 군민이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AI 칩 강자' 엔비디아, 천비디아 됐다...시총 3조달러 눈앞

10대 1 액면분할 발표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 마이크로소프트(MS) 자리를 넘보고 있다. 엔비디아는 22일(현지시간) 1분기 실적과 함께 주식을 10분의 1로 분할한다고 발표했다.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이미 90% 넘게 올랐는데 이번 조치로 추가 상승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주식 분할은 내달 10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증가 기준 엔비디아 주가가 949.50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1주당 가격이 94.95달러로 100달러가 되지 않는 것이다. 주식 분할은 대개 주가 상승의 호재로 작용한다. 엔비디아처럼 견고한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를 반영하듯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시간외 거래에서 처음 1000달러를 넘어섰기도 했다. 엔비디아 주가가 100달러 안팎을 나타냈던 것은 2020년 7월이었다. 약 4년간 10배 수준으로 뛰어오른 것이다.

엔비디아는 올해 몸집이 두 배로 늘었지만 상승 여력에 따라서는 시가총액 3조 달러는 물론, 현재 시총 1위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자리를 넘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날 증가 기준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2조 3350억 달러로, MS(3조1990억 달러)와 애플(2조9270억 달러)에 이어 3위에 올라 있다. 약 30%만 상승하면 시총 3조 달러 클럽에 들어서며 애플을 제칠 수 있고, 37%가량 오르면 MS마저 넘을 수 있다. /연합뉴스

"위스키 최대 40%" 이마트 광주점 '주류위크' 진행

이마트 광주점은 오는 30일까지 상반기 '주류위크' 2주차 행사를 열고, 인기 위스키와 고량주 등을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행사 중심 품목에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수요가 높은 위스키를 선정하고, 이와 함께 연태고량주, 기타양주, 막걸리 등도 할인한다. 대표상품인 '발베니 12년 더블우드(700ml)'를 9만9000원에, '산토리 가쿠빈(700ml)'은 3만 7800원으로 특가에 판매한다. 그 외에도 '듀이스 화이트라벨(700ml)'과 '러셀 리저브 10년(750ml)를 기존보다 각각 40%, 30%

할인가에 선보인다. 또 행사기간 중 이마트앱에 있는 스마트오더 서비스 '와인그램'을 이용해 전용 할인 상품들을 구매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부쉬밀 16년 싱글몰트(700ml)'를 정가보다 5만원 저렴한 20만원에, '러셀 리저브 싱글배럴(750ml)'은 행사가 10만 7100원에 판매한다. 이 외에도 연태고량주(500ml)를 기존 가격보다 20% 할인하고, 생(生)막걸리 전품목을 대상으로 2병 구매시 10% 할인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